

한중 '눈/眼'의 다의구조 대조연구

孟柱億* · 鄭邃恩**

目 录

1. 서론
2. 연구방법 및 이론적 근거
3. 중국어 '眼'의 다의구조
4. 한국어 '눈'의 다의구조
5. 한중 '눈/眼'의 대조 분석
6. 결론

1. 서론

다의어(多義語)란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쓰이는 낱말로, 기본적으로 중심의미와 중심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주변의미로 이루어진다. 또한 다의어는 한 낱말이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단의어와 구분되며 여러 의미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음이의어와 구분된다.¹⁾ 이처럼 하나의 낱말이 여러 의미를 갖는 다의어는 우리의 언어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용되고, 이는 같은 낱말이라 할지라도 각국의 언어습관, 문화, 생활방식이나 사유방식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언어

* 韓國外國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 韓國外國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課程

1) 민영란(2012), 「한국어 얼굴과 중국어 臉의 의미 확장 비교 연구」, 『어문론총』 57집, 1쪽 참조.

역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양 언어의 다의어는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미묘하게 다른 방향으로의 의미적 파생이 일어난다. 이는 낱말의 파생 방식의 차이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각각의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자의 목표언어 구사 시 모국어와 목표언어 간 어휘 의미의 기계적 일대일 대응으로 인한 오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다의어의 의미적 특성이 어떠한 기준으로 파생되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한중 양 언어 간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의 연관성 대응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한중 양국어의 신체어 '눈/眼'을 분석도구로 설정하여,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유기적 관계에 따른 다의어의 의미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대조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신체어를 매개로 하는 은유표현은 언어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는 우리 인간의 몸이 심리적 활동을 외부로 나타나는 표현주체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몸은 정신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은유³⁾나 환유와 같은 비유적 기제를 통한 표현들이 실제 언어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우리의 일상 언어표현에는 상당부분의 비유적 표현들이 스며들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체어 중 '눈/眼'의 다의적 의미특성을 은유나 환유의 기제에 따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의미적 고찰을 통해 양 언어 사용자들의 사유방식의 차이점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언어와 정신적 관계를 포함한 각 문화의 고유성이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는 특징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2) 김준기·김향숙(2003), 『현대국어 관용어연구』, 한국문화사, 191쪽 참조.

3) 은유의 기본적인 기능은 한 종류의 경험을 다른 종류의 경험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고립된 유사성, 새로운 유사성의 창조,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노양진, 나익주; 2011:263쪽 참조).

2. 연구방법 및 이론적 근거

1) 연구방법

구체적인 신체어 '눈'에 대한 다의적 의미확장을 연구한 사례로는, 배도용(2002)이 있다. 그는 한국어 신체어 '눈'의 형식상의 구성방식과 의미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의미 확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다의적 개념화 양상에 대해서 나열하였다. 또한 박은희(2008)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에 해당하는 신체어 '눈'을 은유표현의 대조분석을 통해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언어와 문화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로의 접근을 시도하여 다의어 '눈'을 연구하였다. 박종갑(2007) 역시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해당하는 다의어를 대조 연구하였는데, '눈' 뿐만 아니라 그 외 몇몇 신체어를 대상으로 하여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다의적 특성을 대조, 고찰하였다.

이들 논의는 기존에 다의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구조의미론이나 생성의미론⁴⁾에서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았던 의미 확장을 통해 다의어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즉 다의어의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확장을 인지의미론적 범주화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주의적 범주화로 특정 낱말을 분석 도구로 하여 연구를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한중 신체어 '눈'이 다의적 확장을 하는 과정을 인지주의적 범주, 그 중에서도 은유나 환유를 통한 해석으로, 양 국가의 언어의 차이점과 어떠한 사유방식에 의하여 각각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용된 예문은 한국어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눈'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중국어의 경우 『現代漢語詞典』과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 '眼'과 관련된 표현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북한말의 의미라고 표시되어 있는 예문들은 실제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다

4) 생성의미론과 인지문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Lakoff(1987:582-585쪽) 참조.

의어 ‘눈’의 개념과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하여 대조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므로 한중다의어 ‘눈’의 대조연구에서 제외하였다.⁵⁾

한중 다의어 ‘눈’의 대조연구에 앞서, 먼저 다의어의 개념을 파악하고, 다의어의 정의와 다의어의 중심의미와 중심의미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구성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국면을 토대로 주변의미로의 의미 확장패턴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눈’과 중국어 ‘眼’에 나타나는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각각의 의미특징을 고찰하여 차이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아울러 양 국가의 사유방식의 차이점에 따라, 같은 낱말의 확장패턴 또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감을 밝혀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의미의 확장이 은유나 환유와 같은 비유법의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한국어 ‘눈’과 중국어 ‘眼’의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하고 정리할 것이다.

2) 이론적 근거

다의어(多義語)란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쓰이는 낱말로, 기본적으로 중심의미와 중심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주변의미로 이루어진다. 또한 다의어는 한 낱말이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단의어와 구분되며 여러 의미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음이의어와 구분된다.⁶⁾ 다의어는 단의어와는 형식과 의미의 ‘대응’ 여부에서 구별되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의미사이의 ‘관련’ 여부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⁷⁾ 즉, 다의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단어들 사이에 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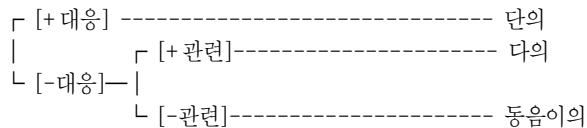
5) 우리말 사전 상의 ‘눈길’은 ‘눈이 가는 곳. 혹은 눈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실제 언어표현에서 ‘눈길이 마주치다’, ‘눈길이 쏠리다’, ‘눈길을 피하다’ 등으로 쓰이는 반면, 북한어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로 정의되어 ‘눈길이 모자라도록 둘러봐도 산은 없고 온통 무연한 벌이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민영란(2012), 「한국어 얼굴과 중국어 臉의 의미 확장 비교 연구」, 『어문론총』 57집, 1쪽 참조.

7) 이를 배도용(2001:13)에서는 단의어와 다의어, 동음이의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낱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어가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의미’라고 일컫고, 그러한 주변의를 토대로 하여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는 나머지의 의미들을 ‘주변의미’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중심의미와 중심의미에서 파생되어 확장된 주변의미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다양한 문맥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낱말들이 다양한 상황과 문맥 속에 적용되면서 단순한 기본의미로 나타날 수 없을 때, 단어의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또한 이러한 다의어의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확장에 따라 그 확장 과정과 패턴에 대한 분석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각각의 의미관계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 동향이다.⁸⁾ 그렇다면 이러한 다의어의 원형적 의미에서 주변의 의미로 파생되는 확장의 과정은 무엇을 기제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은유와 환유라는 비유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언어연구에서의 비유법이란 자연적인 언어가 아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수사학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은유와 환유와 같은 비유법은 비단 수사학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 전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사용되어 지고 있는 언어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레이코프·존슨(G Lakoff · M. Johnson([1980]2003)) 역시 은유와 같은 비유법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음을 설명하였다.⁹⁾



8) 임지룡(1996)에 따르면 고전주의에서는 ‘핵 의미 구조’를 인정해 온 반면, 인지주의에서는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의미연쇄 구조’와 ‘의미망 구조’에 따라 다의어를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낱말들에서 공통의 핵 의미를 도출해낸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 이후, 최근에 들어서는 원형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망이나 같은 의미연쇄(meaning chains)를 통해서 다의적 범주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9) 그는 “은유가 우리의 일상적 삶(단지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위에 널리 퍼져 있

이처럼 은유나 환유와 같은 비유법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다의어의 의미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다의어의 의미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다의어의 여러 가지 의미적 파생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 역시 가능할 것 이라는 추측이다.

그렇다면 은유나 환유를 통한 다의어의 의미 확장의 원리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인간은 어떤 한 가지 낱말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의미로의 확장을 할 때, 인접성과 유사성의 인지능력에 의해서 기존 낱말의 의미를 유연하고도 창조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여기서 ‘인접성 인지능력’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상을 관련시키는 능력, 곧 ‘환유’(metonymy)로서 기존 낱말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일이며, ‘유사성 인지능력’이란 대상과 대상 간에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 곧 은유(metaphor)로써 기존 낱말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¹⁰⁾

위의 은유¹¹⁾와 환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의어의 의미확장에 적용한 실험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는 임지룡(1996)의 ‘머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은유와 환유의 확장패턴을 참조한 것이다.

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라고 상세히 설명하였다(레이코프·존슨(G. Lakoff·M. Johnson):2011:21 쪽 참조).

10)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집, 249쪽 참조.

11) 은유란 어떠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ARGUMENT IS WAR(논쟁은 전쟁)’에서의 ‘논쟁’은 ‘전쟁’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구조화되고, 이해되고, 수행되고, 말해진다. 한편 환유는 은유와 달리 어떤 개체와 관련되는 다른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 개체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그 햄 샌드위치가 그의 계산서를 기다리고 있다)’에서 ‘그 햄 샌드위치’는 어떤 실제의 사람, 즉 그 햄 샌드위치를 주문했던 사람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은유와 환유는 어떠한 개체나 사물을 대신하여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지만, 그 개체를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과 단순히 그 개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둘의 개념은 확연히 다른 종류의 사상과정이다 (노양진·나익주 2011:22-77 참조).

(1) '머리'의 은유적 확장

- ① 물리적 위치 (사물의 꼭대기) : 책상머리, 산머리, 못대가리
(사물의 앞쪽) : 머리맡, 뺏머리
- ② 공간적 위치 : 들머리, 머릿돌
- ③ 사회적 위치 : 우두머리,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마라.
- ④ 순서적 위치(시초) : 머리맡, 말머리

(2) '머리'의 환유적 확장

- ① 부위-전체 : 머리를 헤아리다.
- ② 장소-부속물 : 머리가 길다.
- ③ 수단-기능 : 머리가 좋다.
- ④ 장소 : 머리에 새기다.

위의 (1) '머리'의 은유적 확장은 원칙적으로 '머리'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머리'를 각각 다른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2) '머리'의 환유적 확장에서는 '머리'를 각각 다른 기능으로 대체하여 본래의 개체인 '머리'를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유와 환유의 본질적인 특징은 '이해'와 '지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비유법 모두 각각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즉,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은 원형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facet)에 적용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¹²⁾ 즉, 실체에 해당하는 중심의미를 기준으로 각각의 국면구조가 생기게 되고, 원형의미를 이러한 다른 국면에 적용함으로써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의어의 의미 확장 원리는 환유 및 은유의 기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심의미를 기준으로 그 국면구조를 살펴본다면 다의어의 의미특징 양상 역시 분석이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의어 '눈/眼'의 중심의미를 설정하고, 그 중심의미에 따른 국면을 분석도구로 삼아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확장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그 확장양상에 어떠한 비유적 방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확장하여 나가는지 그 유기적인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배도용(2001),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쪽 참조.

3. 중국어 ‘眼’의 다의구조

1) 중국어 ‘眼’의 사전적 의미

중국어 ‘眼’의 은유적 확장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중국어 사전 『現代漢語詞典』과 『現代漢語規範詞典』의 ‘眼’의 뜻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眼’ 『現代漢語詞典』

- ① 人或動物的視覺器官。通稱眼睛 (사람 또는 동물의 시각기관)
- ② 小洞：窟窿 (작은 구멍)
- ③ 指事物的關鍵所在 (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
- ④ 圍棋用語，由同色棋子圍住的一個或兩個空交叉點 (바둑의 집)
- ⑤ 戲劇中的拍子 (희곡의 박자)
- ⑥ 用於井，窯洞 (우물, 동굴집의 양사)

(2) ‘眼’ 『現代漢語規範詞典』

- ① 人或動物的視覺器官。(사람 또는 동물의 시각기관)
- ② 小窟窿；小孔洞 (작은 구멍)
- ③ 圍棋用語，指由一方棋子圍住的空位，對方非因特殊情況不能在其中下子。(바둑의 집)
- ④ 用於井，泉水或窯洞 (우물, 샘물 혹은 동굴집의 양사)
- ⑤ 指識別能力；見識 (식별능력, 식견)
- ⑥ 指事物的關鍵，精要的地方 (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
- ⑦ 戲劇中的節拍 (희곡의 박자)

다의어가 중심의미와 주변의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중국어 사전 『現代漢語詞典』에서 ‘眼’의 의미 중, (1)①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시각기관, 즉 ‘안부(眼部)’ 그 자체의 기능을 가리키며, 이는 중심의미에 해당한다. 그리고 (1)②~⑥은 중심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주변의미에 해당한다. 한편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 ‘眼’의 의미 역시 (2)①은 중심의미에 해당하며, (2)②~⑦은 중

심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주변 의미에 해당한다. 『現代漢語詞典』와 『現代漢語規範詞典』의 사전적 의미를 비교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그 의미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 '식별능력, 식견'을 나타내는 의미가 더 추가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現代漢語詞典』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적 의미를 차례로 분석하기로 하고, 『現代漢語規範詞典』에 추가된 의미인 '식별능력, 식견'을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기로 한다.

2) 중심의미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하여 중국어 '眼'의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1),(2)①에 해당하는 '眼'의 중심 의미를 살펴보자. 아래는 중국어 '眼'의 중심의미인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 ① 大家眼巴巴地等著他回來
(모두들 그가 돌아오길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 ② 眼睛睜 (눈을 뻥히 뜨고)
- ③ 瞪著眼睛說不出來 (눈을 뜨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 ④ 睜大眼睛直視 (눈을 크게 뜨고 보다)
- ⑤ 他沒有說話, 只是用眼睛嚴厲的瞪著我們
(그는 말이 없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노려본다)

위의 예문 ①에서의 '眼'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모양을 나타내고, ②,③, ④의 '眼'은 눈을 뻥히 뜨고 주시하는 모양, 눈을 크게 뜨는 모양 등 눈을 뜨고 있는 모양을 가리킨다. 또한 ⑤의 '眼' 역시 눈을 부릅뜨고서 마치 눈에 쌍심지를 켜 듯한 모양을 나타낸다. 즉, 이상의 예문에 나타나는 중국어의 신체어 '眼'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시각기관'의 의미를 나타낸 예시이다. 중국어의 사전에 표기된 이와 같은 '감각기관'으로서의 '眼'은, 눈의 제1의 의미로

표기되어 중심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눈을 뜨고 감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눈의 기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주변의미로 확장된다고 볼 때,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심의미는 각각의 국면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국면구조를 바탕으로 주변의미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중국어 ‘眼’의 중심의미가 지니고 있는 국면구조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중국어 ‘眼’의 국면을 논리적으로 구조화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眼’의 중심의미¹³⁾

- ① 형태면: 在人的臉上, 以鼻子爲基準, 分布在其兩側的橢圓狀物。
(사람의 얼굴에서 코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나뉘져 있으며 타원형의 꼴을 하고 있다.)
- ② 구성면: 眼白, 眼眵, 眼袋, 眼皮子, 眼球, 眼圈.....
(흰자위, 눈곱, 아래 눈두덩이, 눈꺼풀, 안구, 눈가.....)
- ③ 기능면: 具有識別事物形態的能力。
(사물의 모양을 분간하는 능력이 있다.)

이상의 중심의미로서 ‘눈’의 의미는 ‘在人的臉上, 以鼻子爲基準, 分布在其兩側的橢圓狀物(사람의 얼굴에서 코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나뉘져 있으며 타원형의 꼴을 하고, 눈동자나 눈알 따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의 모양을 분간하는 능력을 지닌 기관).’으로 풀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뜻풀이는 발이 사람의 다리부분 끝에 달린 부분이듯이 다른 신체 부위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눈의 형태국면이라고 한다. 또한 ‘眼白, 眼眵, 眼袋, 眼皮子, 眼球, 眼圈(눈 흰자위, 눈곱, 눈두덩이, 눈꺼풀, 눈알, 눈언저리).’과 같은 표현은 눈의 구성을 나타내므로 눈의 구성 국면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具有識別事物形態的能力(사물의 형태를 식별하는 능력).’은 눈이 가지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눈의 기능국면이라고 한다. 즉, ‘眼’의 중심의미는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지며, 이러

13) 이것은 Pustejovsky(1995:76)가 제시한 속성구조(Qualia Structure)에 중국어 ‘眼’의 국면구조를 적용한 것이다.

한 국면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의미로의 파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주변의미

다음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국면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의 뜻풀이 순서대로 그 주변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형태면으로의 확장

먼저 (1)②에 해당하는 의미인 ‘小洞：窟窿(작은 구멍)’을 살펴보자. ‘작은 구멍’으로서의 의미는 ‘眼’의 국면 중에서도 ‘형태면’에 해당하며, 눈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으로부터 파생된 의미이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 ① 針紮一個眼兒(바늘로 구멍을 찌르다)
- ② 耳朵眼兒(귓구멍)
- ③ 鼻子眼兒(콧구멍)

위의 예문의 ①의 ‘眼’은 구멍을 나타내고, ②,③역시 신체에 ‘眼’을 추가하여 귓구멍, 눈구멍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눈의 형태상의 특징은 그 생김새가 타원형이고, 동그란 눈동자가 있으며, (눈)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귀의 눈’, ‘코의 눈’에서 쓰이는 ‘眼’은 시각기관으로서의 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눈의 동그란 모양과 똑 파인 형태를 구멍으로 연상하여 문장 안에서 ‘눈’이 ‘구멍’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眼’의 형태를 이용한 은유표현들은 외형적 유사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안부(眼部)’의 형태와 그것들의 형태를 유사하다고 인식한 결과로서 은유에 해당한다. 또한, ‘눈’이라는 실체를 ‘구멍’이라는 표상으로 지시하고 있으므로 환유에도 역시 이중으로 해당된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眼’을 연상할 때 형태의 유사성에 기인하

여 어떠한 대상을 떠올린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확장된 주변의미로 (1)⑥의 ‘用於井, 窯洞 (우물, 동굴집의 양사)’이 있다. 이 주변의미 역시 눈의 형태상의 특징에서 확장된 ‘구멍’에서 더 나아가 ‘우물, 동굴집을 세는 단위’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아래는 (1)⑥의 ‘用於井, 窯洞 (우물, 동굴집의 양사)’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 ① 一眼井 / 打兩眼井 (우물 하나 / 두 개의 우물을 파다)
- ② 清泉一眼 (샘물 하나)
- ③ 掏了幾眼窯洞 / 一眼舊窯洞 (몇 채의 동굴집을 파다 / 오래된 동굴집 한 채)

위의 예문 ①,②,③에 해당하는 ‘眼’은 모두 ‘우물, 동굴집’을 가리키며, 문장 안에서 우물이나 동굴집을 세는 양사로 쓰인다. 여기서의 ‘眼’은, 눈의 동그란 모양과 꼭 파인 형태를 구멍으로 연상하여 ‘眼’을 ‘구멍’의 의미로 확장하였고, 또 다시 ‘구멍’이 우물이나 동굴 같이 뚫어지거나 패인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또한 이 의미 역시 ‘眼’이라는 실체가 ‘우물, 동굴집’이라는 표상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환유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眼’과 ‘우물, 동굴집의 양사’의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眼’을 우물, 동굴집을 세는 단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은유에 해당한다. 즉, 환유와 은유가 이중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2) 구성면으로의 확장

다음으로 (1)③에 해당하는 ‘指事物的關鍵所在(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로의 확장과정을 살펴보자. ‘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으로써의 의미는 ‘眼’의 국면 중에서도 ‘구성면’에 해당한다. 눈은 신체기관의 일부로서 중요한 부분인 신체의 ‘핵’과 같은 감각기관이다. 아래는 ‘眼’이 ‘감각기관→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으로의 확장을 나타낸 예시이다.

- ① 節骨眼兒 (긴요한 대목, 요점)
- ② 錢花的眼上 (돈을 긴요하게 쓰다)
- ③ 他是我的眼珠子 (그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 ④ 詩眼 (시구 중 핵심적인 글자)

이상의 예문 ①의 '眼'은 긴요한 대목, 요점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②의 '眼'은 돈을 쓸 때, 중요하게 쓰임을 강조한다. ③의 '眼' 역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④의 '眼' 역시 시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가리키며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위의 예문은 모두 '眼'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물의 관건을 나타내고 있다.

눈은 거의 만국공통으로 '마음의 창'이라고 할 만큼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의사를 투영하며, 우리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기관이다. 또한 신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眼'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일 뿐이지만, 신체의 여러 부위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유방식으로 신체어 '眼'을 통해 연상할 때, 눈의 형태에 이어 '중요성', '관건'이라는 의미를 떠올리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체로의 '眼'을 추상적인 의미인 '중요성', '관건'으로 이해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은유적 기제로 확장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사전에서 다음 차례에 나열되어 있는 주변어미 (1)④,⑤에 해당하는 '圍棋用語, 由同色棋子圍住的一个或兩個空交叉点(바둑의 집)', '戲劇中的拍子(희곡의 박자)' 역시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眼'의 국면중 구성면에 해당하며 눈의 '중요성', '관건'을 나타내고 있는 낱말이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圍棋的眼 (바둑의 눈)
- ② 一板三眼 (4박자 리듬에서 3박자를 약하게 치고, 나머지 1박자는 강하게 칩)

③ 唱錯了眼了 (박자가 틀렸다)

위의 예문①에서 바둑의 눈은 바둑을 두는 지점으로 중심부, 즉 중점을 나타낸다. ‘眼’이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연상되어 바둑을 둘 때에, 바둑을 두는 중심 부분을 눈으로 연상한 것이다. 또한 예시 ②,③에서의 ‘眼’은 중국 전통극 혹은 전통음악에서의 박자를 나타낸다. 박자는 일정한 수의 박이 모여 음악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희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眼’의 신체부위에서의 ‘중요한 부분, 중요성’이 강조되어 전통음악에서의 박자와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은유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구성적 측면을 바탕으로 ‘眼’을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眼’이라는 실체가 ‘바둑의 눈’, ‘희곡의 박자’라는 표상을 지시하므로 환유 역시 적용되었다.

(3) 기능면으로의 확장

다음으로 (2)⑤에 해당하는 ‘指識別能力: 見識 (식별능력, 견문)’를 살펴보자. 이것은 중국어 사전에 나열된 주변어 중, 유일하게 ‘眼’의 시각기관에서 ‘기능면’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진 의미이다. 아래는 ‘眼’이 ‘감각기관→식별능력, 견문’으로 확장된 예시를 나열한 것이다.

- ① 獨具只眼 (탁월한 안목을 갖추다)
- ② 慧眼識英雄 (예리한 안목을 지닌 자는 영웅을 알아본다)
- ③ 淺眼 (견문이 얕다)

위 예문의 ‘眼’은 모두 ‘식별능력, 견문’을 나타내고 있다. ‘눈’은 인간의 신체와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므로,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세상을 식별하는 능력, 견문이 생긴다는 사유방식에서 확장된 의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 역시

‘眼’이라는 실체를 ‘식별능력, 견문’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은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중국어 다의어 ‘眼’을 사전에 표기된 의미항목에 따라,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확장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의어 ‘眼’은 人或動物的視覺器官, 通稱眼睛(사람 또는 동물의 시각기관)의 중심의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국면(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중국어 ‘眼’의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확장 패턴은 두 가지의 국면을 중심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첫째, 형태면으로의 확장이다. 눈의 동그랗고 움푹 패인 형태적 특징을 구멍으로 연상하여 ‘眼→구멍→우물이나 동굴집’과 같은 의미로 확장되었다. 둘째, 구성면으로의 확장이다. 눈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眼→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바둑의 집→회곡의 박자’와 같은 의미로 확장되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능을 강조하는 ‘식별능력, 견문’을 나타내는 주변의미도 있지만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한국어 ‘눈’의 다의구조

1) 한국어 ‘눈’의 사전적 의미

다음으로는 한국어 ‘눈’의 다의구조의 분석이다. 한국어 ‘눈’의 다의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눈’의 뜻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눈’ 『표준국어대사전』
- ①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 ② 시력

- ③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 ④ ('눈으로' 꼴로 쓰여)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 ⑤ 사람들의 눈길
- ⑥ 태풍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

한국어 '눈'의 사전적 의미에서 (1)①은 '안부(眼部)' 그 자체의 기능을 가리키며, 이는 중심의미에 해당한다. 또한 (1)②~⑥는 중심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주변의미에 해당한다.

2) 중심의미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눈'의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1)①에 해당하는 '눈'의 중심의미를 살펴보자. 아래는 한국어 '눈'의 중심의미인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 ① 눈이 맑다.
- ② 눈이 초롱초롱하다.
- ③ 눈을 뜨다/ 감다.
- ④ 눈을 부라리다.
- ⑤ 눈이 꺼지다.
- ⑥ 눈이 휘둥그레지다.
- ⑦ 눈 깜짝할 사이.
- ⑧ 눈을 굴리다.
- ⑨ 눈을 까뒤집다.
- ⑩ 눈을 돌리다.

위의 예문에서의 '눈'은 모두 눈을 뜨고 감다, 눈을 크게 뜨는 모습, 눈을 굴리거나 까뒤집는 등의 눈의 모양이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눈'의 중심의미에 해당하는 그 자체의 기능인 감각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

현들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한국어 '눈'의 중심의미를 바탕으로 그 국면을 논리적으로 구조화시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눈'의 중심의미¹⁴⁾

- ① 형태면: 사람의 얼굴에서 코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타원형의 꼴을 하고 있다.
- ② 구성면: 눈알, 눈동자, 눈초리, 눈시울, 눈까풀, 눈썹 등...
- ③ 기능면: 사물의 모양을 분간하는 능력이 있다.

이상의 중심의미로서 '눈'의 의미는 '사람의 얼굴에서 코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타원형의 꼴을 하고, 눈동자나 눈알 따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의 모양을 분간하는 능력을 지닌 기관'으로 풀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뜻풀이 가운데, '사람의 얼굴에서 코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타원형의 꼴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발이 사람의 다리부분 끝에 달린 부분이듯이, 다른 신체 부위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눈의 형태국면이다. 또한 '눈알, 눈동자, 눈초리, 눈시울, 눈까풀, 눈썹'과 같은 표현은 눈의 구성을 나타내므로 눈의 구성국면이다. 마지막으로 '사물의 모양을 분간하는 능력'은 눈이 가지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눈의 기능국면이다. 즉, '눈'의 중심의미는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국면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의미로의 파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주변의미

다음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국면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의 뜻풀이 순서대로 그 주변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14) 이것은 Pustejovsky(1995:76)가 제시한 속성구조(Qualia Structure)를 인용한 것이다.

(1) 기능면으로의 확장

먼저 (1)②에 해당하는 ‘시력’을 살펴보자. 시력은 중심의미인 감각기관으로의 ‘눈’에서 파생되어 나온 주변의미로서, 어떠한 사물을 볼 때 뚜렷하게 보이는지 흐리게 보이는지에 관련된 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아래는 한국어 ‘눈’의 시력을 나타내는 예시이다.

- ① 눈이 좋다.
- ② 눈이 밝다.
- ③ 눈이 나빠 안경을 쓰다.
- ④ 눈이 캄캄하다.

위의 예문에서의 ‘눈’은 모두 시력을 뜻한다. 이상의 예문들은 중심의미인 감각기관으로의 ‘눈’이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의 기능으로 파생되어 감각기관이 좋고 나쁨, 즉 감각기관→시력으로의 의미 확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눈’이 ‘시력’이라는 기능을 가리키며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로서 ‘기능’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환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1)③에 해당하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나면 그 시각적 정보가 바로 뇌로 전달되어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 이것은 눈이 있어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 것이고, 시력이 있어야 세상의 사물과 이치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눈→시력→판단력’의 과정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래는 ‘눈’이 ‘판단력’을 나타내는 한국어 예시이다.

- ① 그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 ② 그는 눈이 높다.
- ③ 눈이 트이다.

위의 예문에서의 ‘눈’은 모두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는 ‘판단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두 감각기관이나 시력을 나타내는 구체적 의미에서, 판단능력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확대된다. 이처럼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은 각각의 주체와 속성간의 유사지각에 의한 확장임을 알 수 있다. 즉, 의미들은 모두 유기적인 관련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곧 은유적 방식에 의한 확장이다. 따라서 은유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그와 유사한 다른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본질적인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다의어의 의미 확장 방법 역시 중심의미와 주위의미들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즉, 의미들은 모두 유기적인 관련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④에 해당하는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주위의미로의 확장을 살펴보자. 아래는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예시이다.

- ①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다.
- ② 의심하는 눈으로 보다.
- ③ 그에게 눈이 가다.
- ④ 눈이 시다.

위의 예문에서의 ‘눈’은 모두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의 표정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이 시력으로 확장되고, 시력 좋고 나쁨에 따라 세상을 흐리고 밝게 바라보며 개인의 주관적 판단력이 생기며, 또한 그 판단력으로 인한 생각이 표정이나 태도로 나타난다는 사유방식의 의미 확장이다. 이러한 확장 양상은 눈의 기능을 강조하여 확장된 것이며 모두 은유적 기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 표정이나 태도’라는 기능을 가리키며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므로, 이는 ‘실체’로써 ‘기능’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환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즉 표정이나 태도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크게 나아가 사회의 습관에도 반영이 된다. 즉, 개인의 표정이나 태도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길의 의미로 파생되는 것이다. 아래는 (1)⑤의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길’을 나타내는 주위의미로의 확장예시이다.

- 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 ② 사람들의 눈을 피하다.
- ③ 눈이 많다.
- ④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줄 알아라.
- ⑤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다.

위의 예문에서의 ‘눈’은 모두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길’을 나타낸다.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이 시력으로 확장되고, 시력 좋고 나쁨에 따라 세상을 흐리고 밝게 바라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 판단력이 생긴다. 또한 그 판단력으로 인한 생각이 표정이나 태도로 나타나고, 그러한 입장이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으로 확장되어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길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이는 환유와 은유가 이중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눈’이라는 실체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기능을 대체하여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환유를 기제로 하였다. 또한 ‘눈’이라는 구체적인 개체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추상적인 기능으로 확대되어 이해되고 있으므로 은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눈’의 개념 영역이 구체적인 감각기관 영역에서 추상적인 기능 영역으로 비유적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으며, 각 영역의 의미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겹침과 연쇄에 의해 모두 유기적인 확장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라는 중심의 미인 ‘눈’에서 시력,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눈으로’ 풀로 쓰여)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사람들의 눈길과 같이 기능적 국면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의 확장이 일어났다.

(2) 구성면으로의 확장

한국어사전 상에 표기되어 있는 주변어미 중, 예외로 기능적 국면으로의 확장이 아닌 구성 국면으로의 의미 확장 또한 찾아 볼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 ① 이것이 바로 태풍의 눈으로 격렬한 폭풍우의... ; 태풍의 눈
- ② 태풍의 눈인 광화문의 거리응원은... ; 태풍의 눈
- ③ 적대적 M&A를 가능케 하는 사모형 주식펀드의 허용도 M&A시장의 태풍의 눈이다... ; 태풍의 눈

위의 예문에서의 '눈'은 '태풍의 눈'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눈'의 중심의미 가운데 구성면에서 확장된 의미로 '중심'15)의 의미를 말한다. 눈은 신체적 관점에서 보면 인체의 일부일 뿐이지만, 때때로 한국어의 '눈'은 심리적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핵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태풍의 한 가운데 부분을 인간의 신체기관 '눈'에 비유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심부', '핵심'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또한 이것은 '눈'이라는 실체로써 '중심'이라는 기능을 나타내므로 환유의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또한 '눈'의 심리적인 핵 요소라는 공통적 인식과 태풍의 중심부와 동일 시 된다는 점에서 은유의 과정 또한 뒤따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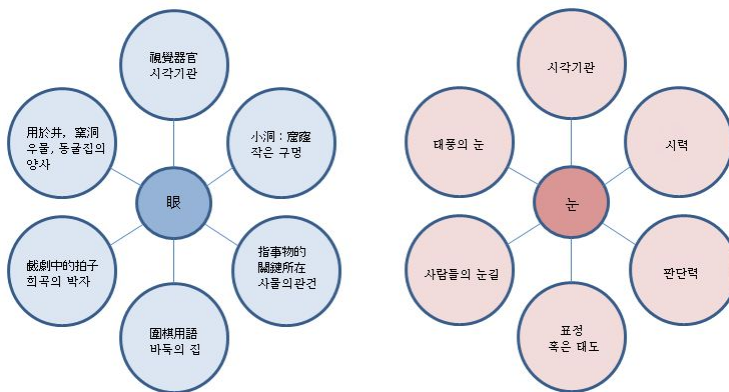
이상으로 한국어 다의어 '눈'을 사전에 표기된 의미항목에 따라,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확장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의어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으로서의 중심의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국면(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국어 '눈'의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확장 패턴은 크게 한 맥락으로 뻗어나감을 파악 할 수 있는데, 바로 기능면으로의 확장이다. '눈'이 사물을 바라보는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시력→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눈으로' 끌로 쓰여)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사람들의 눈길로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구성면에서 확장된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눈'→'태풍의 눈'으로의 확장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구성면으로의 확장으로,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5) 태풍을 위에서 내려다보면(TV의 위성사진의 경우), 중심부는 그 주위가 두껍고 높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맑게 개어있다. 이곳이 태풍의 눈이다. 따라서 이 경우 '눈'은 '중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도용;2001:67쪽 참조).

5. 한중 '눈/眼'의 대조 분석

이상에서 분석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의어 '눈/眼'을 대상으로 삼아 그 다의적 특성을 대조하며 양국의 의미영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앞 절에서 전술한 한국어 '눈'과 중국어 '眼'이 확장된 의미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1) 한중 '눈/眼'의 다의구조 차이



[그림1] '눈'과 '眼'의 다의 구조도

사전적 의미 기술에 의하면 한국어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중심의미로부터, '시력, 판단력, 표정이나 태도, 사람들의 눈길, 태풍의 눈'으로 확장되었고, 중국어 '眼'은 '人或動物的視覺器官。通稱眼睛 (사람 또는 동물의 시각기관)'이라는 중심의미로부터, '窟窿(작은 구멍), 指事物的關鍵所在(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 圍棋用語, 由同色棋子围住的一个或两个空交叉点(바둑의 집), 戲劇中的拍子(희곡의 박자), 用於井, 窯洞

(우물, 동굴집의 양사), 指識別能力, 見識(식별능력, 견문)'으로 확장되었다. 의미 확장의 수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눈/眼'의 의미영역은 눈이 가진 국면(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을 바탕으로 그 확장패턴의 양상에 차이점이 있다.

2) 한중 '눈/眼'의 다의구조 대조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다의어를 이루는 의미영역들을 중심의미와 앞 절에서 언급한 3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전에 나열된 의미를 대응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어 사전의미는 《現代漢語詞典》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現代漢語規範詞典》에 추가적으로 실려 있는 '指識別能力; 見識(식별능력, 견문)'의 의미도 역시 분석대상으로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먼저 한국어 사전에서는 '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 '눈'
 - ①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 ② 시력
 - ③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 ④ ('눈으로' 꼴로 쓰여)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 ⑤ 사람들의 눈길
 - ⑥ 태풍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

한편, 중국어 사전에서는 '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2) '眼'
 - ① 人或動物的視覺器官。通稱眼睛(사람 또는 동물의 시각기관)
 - ② 小洞：窟窿(구멍)
 - ③ 指事物的關鍵所在(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

- ④ 圍棋用語, 由同色棋子圍住的一個或兩個空交叉點 (바둑의 집)
- ⑤ 戲劇中的拍子 (희곡의 박자)
- ⑥ 用於井, 窯洞 (우물, 동굴집의 양사)
- ⑦ 指識別能力; 見識 (식별능력, 견문)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전의미를 비교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 [대상], 즉 중심의미에 속하는 것은 (1)①, (2)①이다. 이것은 모두 신체의 일부분인 ‘감각 기관’으로서의 ‘눈/眼’을 나타낸다. 주변의미는 이 대상을 중심으로 3가지의 국면으로 확장되었다.

첫째, [형태면]으로의 확장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은 중국어의 (2)②,⑥이다. 눈의 형태상의 특징은 그 생김새가 타원형이고, 동그란 눈동자가 있으며, (눈)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눈/眼’의 동그란 모양과 폭 파인 형태를 구멍으로 연상하여 문장 안에서 ‘눈’이 ‘구멍’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실제로 눈을 구멍으로 연상하는 용례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으로, 중국인의 한국인의 사유방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한편 한국어 사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의미가 존재하긴 하나, 이를 다의관계로 보지 않고 동음이의관계로 처리하고 있다.¹⁶⁾

둘째, [구성면]으로의 확장을 살펴보자.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은 한국어의 (1)⑥, 중국어의 (2)③,④,⑤이다. 눈은 신체적 관점에서 보면 인체의 일부일 뿐이지만, 때때로 ‘눈’은 심리적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핵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태풍의 중심을 눈에 빗대어 은유한 것이다. 중국어의 ‘눈’ 역시 신체구성의 하나로써 중심을 이루는 핵과 같다는 점에서 ‘중요성, 관건’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며 ‘사물의 관건, 바둑의 집, 희곡의 박자’와 같은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유방식의 공통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성에

16) <눈3>: ① 그물 따위에서 코와 코를 이어 이룬 구멍. ② 당혜, 운혜 따위에서 코와 뒤울의 꾸밈새. ③ 바둑판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점 (박종갑 2007:67쪽 참조).

대한 사유방식의 과정에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중국어 ‘바둑의 집’에 해당하는 의미는 한국어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어있으며, ‘희곡의 박자’는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또한 한국어는 6개의 사전의미에서 구성면에 해당하는 주변의미는 1개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국어는 사전의미 중 7개의 의미에서 3개의 의미가 구성면으로의 의미 확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능면]으로의 확장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은 한국어 (1)②,③,④, ⑤와 중국어 (2)⑦이다. 특히 한국어는 총 6개의 주변의미 중 4개가 이에 속하며 사전에 정의된 ‘눈’ 의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미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사전에 해당하는 (1)②의 ‘시력’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잘 보이느냐 잘 보이지 않느냐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연상으로 인해 ‘시력’의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한편 중국어사전의 ‘眼’ 의미항목에는 이러한 의미가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전에 제시된 용례에서는 ‘眼花(눈이 침침하다), 眼力(시력)’과 같은 예시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적 의미항목에만 나열되어 있지 않을 뿐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기능적 측면인 ‘시력’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1)③,④,⑤에 해당하는 주변의미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적 측면에서 확장된 의미로 모두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확장이다. 중국어의 경우 판단력, 눈길, 표정과 같은 주변의미는 앞에서 전술한 ‘시력’과 마찬가지로 ‘眼’의 사전적 의미항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전 용례에서 ‘眼光(시선, 안목), 眼眶(거만, 거드름), 眼目(시선), 眼色(눈치, 안목), 眼生(눈에 낫설다), 眼熟(낯익다, 익숙하다)’와 같은 표현들이 실려 있다. 또한 문장 안에서 ‘人們的眼里~, 眼中釘’과 같이 쓰이는 용례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전적 의미항목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眼’의 기능적 측면이 사전의 의미항목에서만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을 뿐 사전에 실린 예시 중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과 같은 표현에도 시선

이나 마음, 뜻과 같은 기능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중국어 ‘眼’은 한국어 ‘눈’과 같은 맥락의 다의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의미 항목이 다양하고 그 용례가 다를 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눈의 사전적 의미항목에 나타난 의미는, 수많은 언어표현들 중에서도 특히 그 모국어 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핵심적 의미의 집합이며 기준점이 되는 항목들의 조합일 것이라 여겨, 필자는 본 연구에서 양 국가 언어의 사전적 의미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사유방식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의 낱말의 대조분석은 낱말 연구 분야에 많은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의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눈의 의미를 확장해 나갈 때,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중국인은 형태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표1]

의미영역	한국어	중국어
대상 (중심의미)	(1)① 감각기관	(2)① 視覺器官 (시각기관)
대상의 형태면	(동음이의어로 처리)	(2)② 窟窿 (구멍)
	×	(2)⑥ 用於井, 窯洞 (우물, 동굴집에 사용함)
대상의 구성면	(1)⑥ 태풍의 눈	(2)③ 指事物的關鍵所在 (사물의 관건, 중요한 부분을 가리킴)
	(동음이의어로 처리)	(2)④ 圍棋用語(바둑의 집)
	×	(3)⑤ 戲劇中的拍子 (희곡의 박자)
대상의 기능면	(1)② 시력	×
	(1)③ 판단력	(2)⑦ 指識別能力, 見識 (식별능력, 견문)
	(1)④ 표정이나 태도	×
	(1)⑤ 사람들의 눈길	×

이상의 정리 내용을 보면, ‘눈’과 ‘眼’은 그 의미특성에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단어의 주변의미들은 주로 중심의미와 그 중심의미의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 등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차이점으로는, 한쪽 국가의 언어에는 존재하는 표현이지만 다른 쪽 국가의 언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전에서의 처리방식이 달라 한쪽 국가의 언어에 존재하는 표현이 다른 쪽 국가의 언어에서는 동음이의어로 처리되는 경우이다. 또한 대부분의 다의적 표현들은 하나의 중심의미에서 여러 의미의 주변의미로 파생되어나가는 과정상의 의미특성으로 인하여, 그 확장의 기제는 은유나 환유의 방식에 의해 의미가 확장된다는 특성이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의어 ‘눈’의 의미특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중심의미를 비롯한 각각의 주변의미 관련성에 따른 한중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은유적 언어표현에 대하여 나열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눈/眼’은 동일한 중심의미를 가지는데, 모두 감각기관으로서의 ‘안부(眼部)’를 나타내는 ‘눈’이다. 중심의미 ‘눈’은 그 특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국면(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을 갖는데,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유 방식에 따라서 그 국면에 따른 주변의미로의 확장 양상에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중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눈의 형태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연상을 하게 되며, 한국인들은 비교적 눈의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중심의미에서 주변미로의 연상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 ‘眼’은 중요성이나 관건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으며, 또한 한국어 ‘눈’은 감정이나 척도, 사회관계 등을 나타낸다는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같은 대상에 대하여 인간의 심리 상태의 범주는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각국의 문화나 사유방식의 차이에 따라 같은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연상되어 언어의 의미 확장이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목표언어 구사 시 모국어의 어휘나 목표언어 어휘와의 기계적 일대일 대응으로 인한 어휘선택의 오류를 범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 김준기·김향숙(2003), 『현대국어 관용어연구』, 한국문화사
- 노양진·나익주(역)(2006)(2011), 『삶으로서의 은유』
(G. Lakoff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서울:박이정
- 임지룡·김동환(2008), 『인지언어학 기초』, 서울:한국문화사
- 임지룡(2009),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한국문화사
- 임혜원(2004), 『공간개념의 은유적 확장』, 서울:한국문화사
- 이경자(1999), 『우리말 신체어 형성』, 대전:충남대학교 출판부
- 『표준국어대사전』(2001), 국립국어원편, 두산동아출판사
- 『現代漢語詞典』(2001), 商務印書館.
-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語文出版社
- 민영란(2012), 「한국어 얼굴과 중국어 臉의 의미 확장 비교 연구」, 『어문론총』, 57집
- 배도용(2001),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종갑(2007),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다의어 대조 연구」, 『語文學』 96집, 51-86
- 박은희(2008),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신체은유표현 비교연구- '눈'의 경우」,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집, 229-261
- 임지룡(1998),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15집, 309-331
- 이기동(1984), 「다의어와 의미의 일관성」, 『人文科學』, 52집, 17-48
- 이기동(1986), 「낱말의 의미와 범주화」, 『동방학지』 50집, 289-332
- 이종열(1998), 「'가다'의 다의성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의미학』 3집, 97-118
- 이상도(1997), 「신체어 다의구조에 대한 한중 대비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8집, 241-264

Abstract

Distinction of the word 'eye'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Maeng, Joo-oeck · Jeong, Su-eun

China and Korea have been maintaining close relations over the centuries. The nations have been enjoy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 For these reasons, Chinese language has become one of the major research subjects in Chinese studies. Most of Chinese language learners whose first language is Korean perceive the meaning of the word '眼', means 'eye' in English, as correspondence of '눈' in Korean. However, those two word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ings. Words that have multiple meanings have its marginal meaning based on the central meaning of the word. The patterns of formation of the meaning expansion are related to the way how nativ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perceive the subject of the word. Therefore,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of how people in Korea and China perceive certain words differently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its central and marginal meanings is important. In this research, the word 'eye' in Chinese and Korean is going to be discussed. The patterns of how the meanings are formed will be investigated by looking through the metaphor and metonymy of the target word and how the way of nativ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s perceive the subject differently.

Key words : Polysemy, Metaphor, Metonymy, Central Meaning, Marginal Meaning, Semantic Scope.

투고일 : 2014. 9. 10. / 심사일 : 2014. 9. 15.~ 2014. 10. 15. / 게재확정일 : 2014. 10. 27.